민족문화연구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 특집의 말

청조(淸朝)는 표준 만주어를 확립하고 이를 언중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어 어휘를 자국어로 뜻풀이한 근대적 개념의 사전을 편찬했다. 이것이 바로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1708)이고 이 사전은 다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1771)으로 증보되었다. 이로부터 몽골어로 번역된 『만몽청문감(滿蒙淸文鑑)』, 한어·몽골어·티베트어·위구르어로 대역된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을 비롯해서 조선의 『한청문감(漢淸文鑑)』, 일본의 『청문감화해(淸文鑑和解)』 등 다양한 사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의 동아시아적 전파와 변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이 보여 주는 다양한 언어·문자적 특징 및 문화적 함의에 주목해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라는 주제로 네 편의 관련된 논문을 싣게 되었다. 이들 논문을 통해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이 지닌 언어·문자적 특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전의 체계 및 기술 방식에 드러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엿볼 수 있다. 네 편의 논문 중 앞의 두 논문이 언어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뒤의 두 논문은 언어·문자적 특징을 기반으로 사전의 체계 및 기술 방식에 집중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들 논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천항·김양진의 “『御製增訂淸文鑑』 만주어의 형태 분석 1”은 김양진·이현희(2009)에서 제안된 형태(소) 분석 기준에 의해 『어제증정청문감』 속 만주어 전체 표제어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동사 형태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총 표제어 12,484 단어 중에서 동사 범주의 표제어는 총 5,560개로 동사의 굴절어미 ‘-mbi’, ‘-ha/-he/-ho/-ka/-ke/-ko’류 및 ‘-ra/-re/-ro’류 등을 제외하고 중복형을 삭제하여

얻은 4,043개 목록 중 합성 및 파생 등의 분석을 통해 만주어 동사 단일어간 목록 및 파생접미사 목록과 구성소적 접미사, 불완전어근 목록 등을 확보하고 각 파생접미사에 따른 단어 생산성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만주어 동사 어간 중 형용사로 파생될 때 n형 말음을 갖게 되는 동사 어간 재구형 211개도 확인했는데, 이들 n형 어간 가운데 109개는 파생어로서 대부분은 파생접사 '-rAn-'에 의해 파생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남향림・문현수・고경재의 "『만독사전』(2007)의 만주어 혼성어 분석 오류 고찰"에서는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2』(이하 『만독사전』)에 나타난 혼성어 분석의 오류를 고찰해 보다 정밀한 만주어 혼성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만독사전』에서 혼성어로 분류된 표제어들을 대상으로 분석 오류로 보이는 혼성어의 목록과 그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후대 만주어 사전들의 편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만독사전』의 혼성어 분석 오류는 대체로 그 형성어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분석으로 인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분석 오류는 혼성어가 지닌 소리의 유사성에만 집중한 결과로 특히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만주어 혼성어와 그 형성어에 대한 올바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성우철・김유범・정은진・오민석의 "『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한자 주음 연구"에서는 한자 주음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바탕으로 『어제증정청문감』에서 「삼합한자십이자두(三合漢字十二字頭)」를 통해 제시된 삼합절음 표기의 원칙과 실제의 주음 양상을 고찰했다. 삼합절음은 최대 세 개의 한자를 조합하여 만주어 음절의 소리를 나타낸 주음 방식으로 讀若, 直音, 反切 등 기존의 주음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음절 구조에 따라 글자의 배열을 달리하거나 분절음의 특성을 고려해 글자를 선택하는 등 만주어 음절을 더 세밀하게 표기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삼합절음 표기에 대한 유형과 특징을 새롭게 정리하고 『어제증정청문감』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밝힘으로써 기존 주음 방식의 문화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그 한계가 극복되었는지를 보이고 있다.

이효윤・최혜빈・여채려의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부류의 연구”에서는 『어제청문감』, 『어제증정청문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한청문감』(이하 통칭해 〈청문감류〉)에 나타난 질병 어휘를 대상으로 그 체계와 항목의 특징을 살폈다. 논의에 따르면 〈청문감류〉에서는 먼저 어휘 체계와 관련해 부류명에 의해 어휘 전체를 포괄하는 어휘가 제시되고 다시 질병, 증상, 관련 어휘 순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어휘들이 신체 부위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거나 질병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배열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표제어에 각 질병의 표면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뜻풀이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질병의 특성을 설명했음이 언급되었다. 이처럼 〈청문감류〉는 질병을 다루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관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상으로 특집에 수록된 네 편의 논문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은 만주어를 대상으로 만주어로 그 뜻풀이를 마련한 점, 한자를 비롯한 여러 문자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주어의 발음을 주음한 점, 그리고 만주어에 대한 흥미로운 형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특집 논문들을 통해 만주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만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